

금주일언 마음은 법의 근본이 되
니 마음이 추가되어 마음
이 시킨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죄의 피로움이 스스로 따름이 수레가 바퀴
를 따름과 같다 (법규경·쌍요품 154절)

東大新聞

편집장	김정민	발행인	김정민	편집장	김정민	주최	동국대학교	구	신	발행	동국대학교
편집부	김정민	발행부	김정민	편집부	김정민	주최	동국대학교	구	신	발행	동국대학교
편집장	김정민	발행인	김정민	편집장	김정민	주최	동국대학교	구	신	발행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61)770-2057

제 1222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7년(불기2541년) 4월 14일 (월요일)

1

동대신문 창간 47주년 기념 초청특강

이호선 교수

법률어부의 블랙하이프니

취호 : 선주선(불교 80졸 · 원광대 교수)

동대신문 창간 47주년 기념 초청특강

코페르니쿠스적인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에 관하여-

강사 : 장명국(주간 내일신문 운영위원장)
일시 : 1997년 4월 15일 2시
장소 : 90주년 기념 학술관 세미나 3실
주최 : 동대신문사

동대신문사



지난 10일 오죽원 큰스님 고회 '기념 논총봉정 및 축하법회' 개최

지난 10일 김천 직지사에서는 본교 이사장 '녹원스님 고회기념 논총 봉정 및 축하법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고회를 맞은 오죽원스님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님들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직지사를 가득 매웠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법회는 △삼귀의회 △찬불가 △반야심경 △기년 논총 발원위원장 송석구 총장의 인사 △정병주 부총장의 논총 발간 경과보고 △ 정휴스님의 녹원스님 약력보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회 의장 설정스님의 축사 △문준대표 해정스님의 축사 △생일법회 절단식 △각각에서 보내온 축하메시지 전달 △녹원스님의 답

사 △축가 △사홍서원 △산회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불교의 좌표'라는 제목으로 엮어 이날 발간된 논총은 불교사학 48명이 지난 96년 10월부터 준비했으며 분량만도 총 1천 5백페이지에 달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녹원 큰스님은 1928년 3월 4일 합천에서 출생, 45년 직지사에서 출가해 불가와 연을 맺었다. 또한 직지사 주지, 불교정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중앙총회 의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현 본교 이사장으로 재임중이다.

행정개혁위 구성 등 단체협약 타결 임금협상은 차기회의로 지연

제 4차 97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11일 오후 1시 경주캠퍼스 평가위원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임금협정은 노조측의 임금 7.6%인상 요구안과 학교측의 5%인상안이 구체적 논의없이 5차 입·단협으로 이뤄진 채 '단체협약'과 '97 입·단부 공동요구안'이 주 교섭 내용으로 이뤄졌다.

우선 대학노련에서 하달된 '97년 입·단부 공동요구안'에 대해 김철욱 노조위원장장은 "본교 노조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요구안을 검토한 끝에 연맹 입·단부 공동요구안을 통과시키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내 입·단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단체의 공문이 내려와 논의의 어려움이 있어 삼단체인 연맹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공동요구안에 대한 교섭·체결권을 대학노조연맹에 위임한다는 공문을 작성·학교당국에 전달했다.

연맹에 위임된 공동요구안은 교직원 지위향상, 교육개혁과 사회개혁,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 노동법률 불복종 투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97학년도 단체협약안'은 마무리 단계로 학교당국과 노조측의 활발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합의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직원 채용 및 운용 = 신규인원 13명 채용 △행정개혁 위원회 구성 = 조직 내의 개편과 통합은 협의를 거쳐 합의하기로 결정 △사무기능직 전환문제 = 인력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안 타결 △기술직 3급 신설 = 일반직, 기술직을 나누지 않고 통합적 운영하는 방안으로 3급 신설 △기술직 근무환경 개선 = 관리 사무실의 운영 책정 △기능직 해외연수 인원 증원 = 1년에 3명이상 점진적 적용 △기타사항 = 부서별 운영비를 부서 인원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

노조측은 "전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사항은 많으나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단체협약타결을 평가했다.

범동국인 '북한주민 돕기운동' 추진

기금모금·쌀접수·한 끼니 1백원 절약 등 오는 15일 다량관 학생식당서 '나눔의 점심식사' 진행

범동국인 '북한주민 돕기운동'이 본교 교수회·직원노조·대학원총학생회·총학생회 공동주관, 생활협동조합주무, 동국대학교 후원으로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모금기간이 오늘(14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정해진 이번 운동은, 전국 동국인이 단 한끼나라도 북한주민과 함께 나누는 취지로 현금과 쌀을 주로 모금하며 접수방법은 주체별로 상이하다.

우선 교수회는 개인·화과별 방문모금과 사무실 접수를 실시하며, 직원노조는 개인·부서별 방문모금은 물론 기부연명부에 금액기재와 서명으로 월급공제를 병행한다. 또한 대학원총학생회와 총학생회는 학과 등 단위별모금을 진행하는 동시에 학내에 야외접수대를 개설·모금함을 설치한다.

한편, 교내 모든 식당에서도 이에 동참해 '한끼니 1백원 절약해 북한 주민돕기'를 실시하는데, 직영매장은 1차 모금기간동안 1인 식대당 1백원씩을 기금으로 모금할 것이며 그물투기과 아리수에는 모금함을 설치해 기금을 조성한다.

쌀접수는 학교에서 쌀봉투를 제작해 전 동국인에게 배포하고 모금기간

동안 도서관에 설치된 접수대에서 접수한다. 또한 생활에서는 "자판기 이용중 불가피하게 환불이 안된 금액을 모두 북한주민 돕기 기금으로 낼 예정"이라고 밝혀 북한주민 돕기에 동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또한 오는 15일 다량관 학생식당에서는 '범동국인 나눔의 점심식사'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총장과 교무위원, 교수회, 직원노조, 대학원총학생회, 총학생회의 대표들이 모여 '한끼니 1백원 절약해 북한주민 돕기'에 동참할 예정이다.

동안 도서관에 설치된 접수대에서 접수한다. 또한 생활에서는 "자판기 이용중 불가피하게 환불이 안된 금액을 모두 북한주민 돕기 기금으로 낼 예정"이라고 밝혀 북한주민 돕기에 동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또한 오는 15일 다량관 학생식당에서는 '범동국인 나눔의 점심식사'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총장과 교무위원, 교수회, 직원노조, 대학원총학생회, 총학생회의 대표들이 모여 '한끼니 1백원 절약해 북한주민 돕기'에 동참할 예정이다.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

서울 - 18일 북한산에서 ... 학과상 상금 1백만원 경주 - 18일 남산일대 ... 최다인원 참가단체엔 특별상

학생체(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는 제 28회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오는 18일 북한산에서 개최한다.

오는 18일까지 학생과 산악부에 △4인 1조팀 (학부, 학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혼성조 등 자유롭게 구성) △단체팀 (50명이상으로 교수 2인 이상 참가팀) △행정부서팀 (부서별 구성원의 50%이상이 참가한 부서)으로 접수하면 동국인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대회 당일에는 오전 9시 참가자들이 집결해 4·19기념 행사를 가진후 오전 10시 4·19 기념탑 광장에서 특별 출발한다. 등산로는 △4·19기념탑 △대동문 △북한산장 △위문 △하루재 △도선사로 이어지는 코스며 오후 4시까지 도선사 입구 휴게터에 도착해야 한다. 이후 도선사 입구 휴게터에서 시상식과 폐회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상으로 4인 1조상은 최우수상, 자연보호상, 장기자랑상 등이 있고 학과상은 금상 1백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이 주어지며 행정부서 특별상도 있다. 심사기준은 준비(모자, 셔츠, 신발) 불만족하지 않은 부장, 등산화, 면장갑, 손전등, 비상약 등) 30점, 팀워크(팀원간의 협동심) 20점, 산행시간(시간당) 20점, 등산예절(자연보호, 고성방가 금지, 산행준조, 휴연이나 누주 적발시-10점) 30점등 총 1백

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팀과 전문적으로 산악훈련을 받은 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직원과 함께 구성된 팀과 남녀혼성 4인 1조팀은 총점에 5%를 가산한다. 또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팀은 총점에 10%를 가산한다.

교통편은 6번, 6-1번, 28번 시내버스로 4·19에서 하차하거나 127번 중점에서 내리면 되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학교버스가 수유전철역(도봉구청 정문 방면)에서 4·19탑까지 운행한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오는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경주 남산

에서 4·19기념 등산대회를 갖는다. 교직원, 동문, 재학생, 동아리, 가족사 등을 대상으로 4명이 한 팀이 되어 참가하게 되는 이번 등산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백상탑 앞에 설치된 산악부 특별 캠프에서 접수 받는다.

이번 행사의 등산로는 통일절을 출발하여 △침봉암 △연못 △용장계곡 △정상 △상설암 △상릉으로 이어지며, 이곳에서 시상식 및 장기자랑을 갖는다.

시상내역을 살펴보면 최우수상 1팀, 용맹정진상·코끼리상·연꽃상·자연보호상 각각 3팀이 선정되며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단체에게 특별상이 주어진다.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확정

전교원중 63% ... 총 1억8천여만원 지급

연구교류처(처장=박거덕·수학) 연구부는 3차년도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 경주 전교원 중 약 63%에게 지급되는 이번 연구비는 서울캠퍼스 교수 1백98명에게 9천7백80만원, 경주캠퍼스 교수 1백67명에게 8천1백5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부 이형우부장은 "교원의 우수 연구논문을 국내·외 전문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 발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교원의 창의적인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학문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연구부 이형우부장은 "교원의 우수 연구논문을 국내·외 전문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 발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교원의 창의적인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학문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리수

한 평생을 사느라 버티고 소중함 존재도 없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좌절할 때 희망을 준다. 그래서 공자도 벗의 내방(來訪)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던가. 그러나 대부분의 벗은 운명적으로 결정지워진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럼없는 벗은 역시 고향학교나 대학동창들이다. 지금은 사회적 신분이 높아졌다거나 혼혼케나 벌었다고 재벌 으시대지만, 학창시절로 되돌아가면 그 가문은 여지없이 깨져 버린다.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운명적인 일이지, 자의지일 수 없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는 자의지로 벗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평소 존경하던 이, 가까이 하고 싶은 이를 내

불청지우

평생의 동반(同伴)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증생들의 벗이다. 그 분은 스스로를 '불청지우' 즉, 청하지 않았는데도 벗이 되고자 자청한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속의 재물에 맞붙은 사람들은 부처님과 벗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화려한 사랑을 말한 적도 없다. 세속적 성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분의 삶은 이해하기 힘든 고행의 연속일 따름이다. 그래서 증생들은 부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따분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와 같은 증생들에게 부처님은 벗이 되고자 하신다. 스스로가 선언했듯이 "길을 가리키는 영원한 구도의 나그네"로서 우리곁에 있다. 학교동창은 오래 만나지 못하면 소원해 지는 법이다. 시업상 만난 벗들은 이익이 없을 때 돌아서기 마련이다. 건강하고 용돈 풍부하지 않을 때, 벗은 지친으로 깔려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진정한 불우한 상황속에서 벗을 곁에 두기는 어렵다. 부처님은 바로 그때의 벗이다. 삶의 궁극에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우리는 자칫 불교를 외면하기 쉽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잔소리로서만 듣기 쉽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곁을 맴도는 마음의 벗이다. 마치 무너져 내린 듯한 고향길 땃마루를 지키는 어머니의 주름진 미소처럼, 언제나 그곳에 있다. 누가 세월을 잔인하다 했는가. 동악을 갈고든 불의 한취속에서 부처님의 법언(法言)을 들어야 한다. 꽃전을 간지러는 훈풍속에서 부처님의 몸짓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정병조

문과대 인문학부 교수

여현스님, 발전기금 1구좌 약정서 전달

용돈아껴 매일 1만원씩 무기한 불입키로

지난 3일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에서 정여현(선3)스님이 동국발전기금 1구좌 약정서를 한보광 사업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여현스님은 "비록 용돈을 아껴쓰는 작은 일이지만 동국사랑의 길에 동참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은행 자동이체를 통해 매일 1만원을 무기한 불입하겠다는 약정서를 전달받은 한보광 본부장은 "재학생의 작은 정성은 불일척 가치 이상의 소중한 의

교수 동정

▲ 이황우·이상현(경찰행정학) = 지난 4월 9일 황용하 경찰청장으로 부터 차안연구소 연구지도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97년 4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다.

잔인한 4월, 동국인은 북한주민과 함께 합니다.

우리돈 1천원으로
북한주민의 30공기분을
도울수 있습니다.
1백원이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나무껍질을 먹다가
장축형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
하루세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 돕기운동

- 1차 모금기간 : 오늘(14일)부터 23일까지
- 모금 장소 : 야외접수대 및 개별 방문 모금
- '한끼니 1백원씩 절약해 북한주민돕기운동'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동국대학교 교수회/ 직원노조/ 대학원총학생회/ 총학생회

정치개혁으로 경제 살리자



김 상 목
법정대 행정학과 교수

시사논단

경제회생의 대책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회 다수당인 집권당의 총재인 상황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은 모두 청와대와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목표와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의 제반 활동을 감독·통제하여야 할 국회는 대통령의 권위에 눌려 그 위상도 권능도 상실한 가운데 어디에서도 진정한 정치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타락한 '유사 정치'만 가득할 뿐이다.

그럼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정치가 과연 필요한가? 정치는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토대를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 사회에서 안전한 의미의 자유경제 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해 깊이 개입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등 정부는 경제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경제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의 영역이다.

그럼 당연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국회를 진정한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대변한다. 평소에는 정치에 대해 냉소적으로 정치인의 부정 부패를 규탄하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오히려 앞장서 지연·철회·학연을 따지며 의정 활동의 성직표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올바른 정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실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비리와 비리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버젓이 당선되는 실정이다. 대표자를 냉철하게 뽑을 수 있는 유권자, 자신의 대표자가 올바르게 의정 활동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유권자만이 올바른 정치를 만들 수 있다.

둘째, 국회가 정치의 핵심이 되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정비하여,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일수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 일년 3백 65일 내내 국회의 문이 열려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 이하 행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과, 포괄적인 감사·조사권 및 각 부 장관에 대한 인사동의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제언·결정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

셋째,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평가·감독기능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먼저 국회예산결산 심의 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고, 예산 심의도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행정각부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평가·감독기능이 확립되어야 국민이 바라는 정책과 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

넷째, 정당의 민주화가 민주정치의 초석임을 알고, 각 정당은 당내 민주화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한다. 정치의 실용성은 정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각급의 후보사태는 뿌리깊은 가신 정치, 밀실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당은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를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정치가 보다 활성화되고 국가 정책이 국민의 의사에 뿌리를 두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권 재창출에만 관심이 있고 파벌 조성을 통해 자파세력 확대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이비 정치 지도자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라는 것인가? 이제라도 국회를 정치의 본영으로 만들어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국가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국회는 불을 키고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은 늘 정부를 감시하면서 선거를 통한 심판으로, 정당은 끊임없는 정책 개발을 통해서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가 먼저 확립되어 건강한 국가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설

북한주민돕기 운동에 참여하자

잔인하다는 4월, 우리민족은 역사 이래 가장 잔인한 4월을 맞을 위기에 처해졌다. 5월안으로 2백만 톤에 달하는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주민중 약 3백만 명이 굶어죽을 지경에 이를 것이다. 기근의 심각성은 이미 85년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능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북한을 방문해 굶주림의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온 세계식량계획(WFP)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양상하게 아연 어른들과 영양실조로 빠져 윤기가 없는 피부에 머리카락의 빛깔까지 변한 아이들을 수없이 목격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보월경에 5조원을 쏟아 붓고 매년 음식물 쓰레기로 8조원을 버리면서 4천여원이면 충분히 해결될 북의 식량문제를 방치하여 6.25 한국전쟁을 능가하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형편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재 수시중에 있기 때문에 발할 수 없습니다"를 영무새처럼 반복하는 청문회에 초점을 맞추고, 수천억대 뇌물수수 관련으로 구속된 이들의 자녀매뉴가 무엇이라는 등의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못한 종교계와 민간단체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북한주민 돕기에 나섰다. 본교에서도 교수회, 직원노조, 대학원총학생회, 총학생회, 생활 등이 합동모아 오늘부터 '북한주민 돕기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니 그나마 기쁜 소식이다. 학내에 야외집수대를 개설하고 모금함을 비치해 동국인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한끼니 1백원씩 절약하여 북한주민 돕기 운동'을 통해 교내 모든 식당의 식대에서 1백원씩 절약 모금할 것이라니 가까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지난 3월 등록금 투쟁관계로 학내 제주체의 관계가 그리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돕기 운동'에는 모두 동참해 각자의 위치에 서 역할분담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민족동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쌀과 잡곡을 섞었을 때 밥 한 공기 값은 국제시세로 25원에서 30원에 불과한데 실제 우리 돈 1천원으로 북한주민의 30공기분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 1백원이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나무껍질을 먹다가 장출혈로 고통받는 북한주민에게 하루 세끼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자, 이제 행동만 남았다. 학교 밖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것인가? 교내식당에서 '한끼니 1백원씩 절약하여 북한주민 돕기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 그 해답은 자명하다.



동국만정 고대성

청문회 시칭틀

말 안해도 상관없는 청문회 법적규제·위원 전문화 필요하다

지난 7일부터 국회차원에서 한보비리 배후를 파헤치고자 88년 5공 청문회, 광주 청문회에 이어 세번째로 마련된 '한보청문회'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해소시켜주기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더해주고 있다. 특위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자들은 "모른다" "기억이 없다" "발할 수 없다" 등으로 일관하고 새로 밝혀지는 진실들은 거의 없어 '청문회 왜 하나'라는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답변자들 뿐만 아니라 여·야 위원들의 청문회에 입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나타났다. 야당위원들은 한보비리에 연루된 동료위원들의 면죄부에 대한 거론만 집중적으로 하고 여당위원들 역시 청문회 장점이 권력핵심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야당위원들의 한보관련 사실을 불고 늘어지거나, 증인들의 개인비리, 제도적 허점 등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만 계속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청문회의 초점은 한보특혜비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 뿌리를 캐는 것으로 위원들은 한보 사태와 대선자금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비리의 '몸통'을 밝혀 내기는 커녕 동료위원들의 해명에 급급한 일부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김현철씨의 이권개입이나 국정관여도 상당 부분 여기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밖에 정태수씨가 정·경제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명단,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의 공개도 청문회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증인들의 성실한 답변과 특위위원들의 철저한 준비,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달려 있다는 것을 특위위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증인들의 거짓증언이나 증언 거부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현행 법률이 국회모독과 위증 등의 죄에 대해서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신과 친인척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 있어 증인들은 국회모독죄와 위증죄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의원들이 새로운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야당위원들은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황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김씨와 한보관련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의원들은 "수사기록, 금융실명기록, 세무기록 등의 기초자료조차 보지 못했다"며 "수사관을 갖고 있는 점진인력과 자료제공이 뒷받침 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는 조직적인 수사가 아니라 의원의 신문과 질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실을 캐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

태수처럼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재관이 계속 진행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 등으로 대답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한보국정조사 청문회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청문회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증언을 기록한 속기록을 형사·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검찰, 법원에서 말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말할 경우 자수로 간주해 처벌을 경감하도록 한다'는 형사책임면제제도의 도입과 '증인이 형사처벌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할 경우 특위 위원 3분의 2의 의결로 증언을 강요하고 이부분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이 여야 중심위원들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다. 미국의 청문회는 오래전부터 시행·정착되었는데 청문회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와는 그 준비과정이나 진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까지 사망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는 자료조사만 무려 몇 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청문회의 기간도 1년가까

이 되었다. 한편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이들에 대해서 죄를 경감시켜주는 등 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는 여러 법률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정착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매정당하는 사회풍토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의 경우 각 답이 한보 관련성과 조사·질문능력 등을 감안해 특위위원을 선별했지만, 대부분의 특위위원들은 한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3당 모두 총재나 대선후보, 중진들이 한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질문을 하며 진실된 답변을 요구해야 할 위원들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국민들은 어디서 진실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여야 특위위원들은 이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활동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한 증인들에게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질문을 던져 그들이 실토하지 않는 진실들을 바로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정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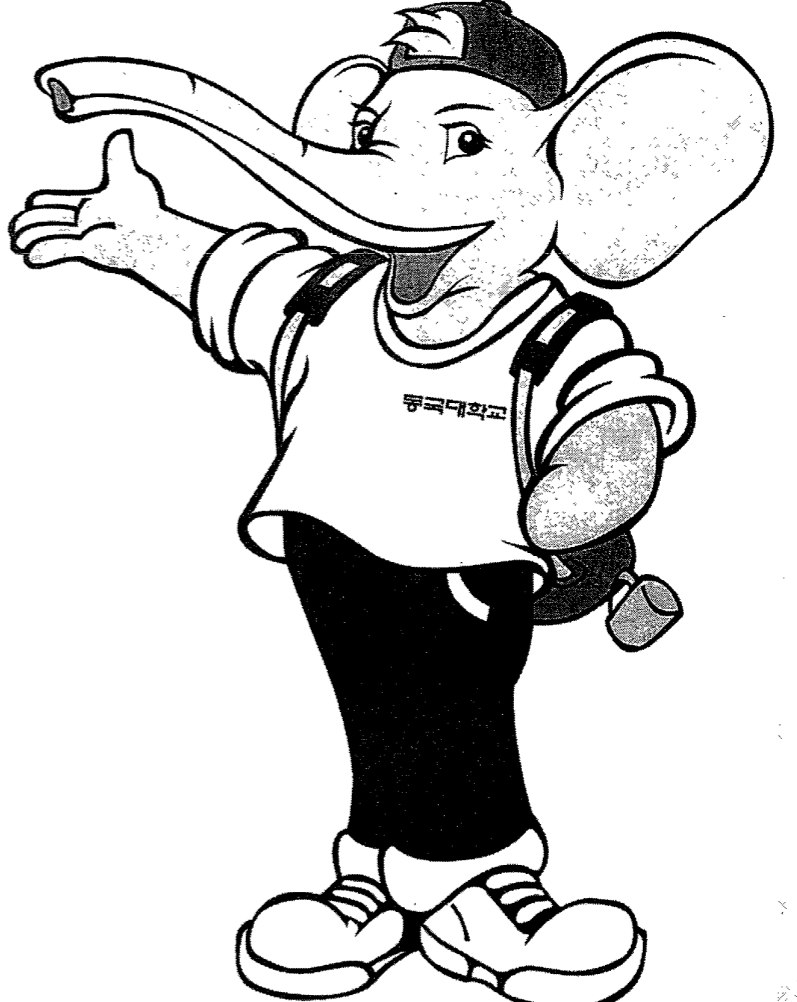
'나는 _____으로 간다'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 일시 : 4월 18일
- 장소 : 북한산 · 경주 남산
- 접수처 : 학생과 · 산악부
- 접수마감 : 오는 4월 18일까지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동국대학교 학생처



◇차기정권 자격론-정통성을 중심으로

차기정권, 권력뿌리·권력창출·권력행사 정당성 확보해야

이 글은 지난 4월 4일 평교수협의회 주최 세미나에서 강경구교수가 발표한 논문이다. 전체 내용 중 '정당성과 정통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는 필자의 의도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대한 개략적 평가는 지면관계상 생략했다. (편집자)

1. 정통성 논의의 필요성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정권의 자격론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 각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아마추어적 수준에 머물러 또 각기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아전인수적인 자격론을 거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주 협소한 영역에만 자격론을 한정시켜 경제대통령, 문화대통령, 통일대통령 등으로 마치 대통령이 한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논의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에 이 글은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에서 차기 정권의 자격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통성에 관한 기준을 바탕으로 차기정권 자격론을 설정하는 것은 통치자가 통치정권의 통치와 지배에 대해 피통치자의 수용을 유발하는 지도력이라는 포괄적 개념 정의를 비롯해서 정권의 통치에 대해 피통치자가 자발적 동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정권은 민족사적 과제나 당대사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행하거나 또는 단순한 권력유지를 위한 통치권 지속을 위해서 물리적 강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을 행사하여 자원을 동원하거나 피지배자를 복종시키게 한다. 이러한 무력 및 강압 의존의 통치는 당 시대에 요청되는 민족사적 과제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마면이고 국민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또는 국민 일반에 냉소주의나 무관심을 유발시키고 정치 지도력 부재로 인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통치시대를 맞아 통일 기반 조성, 지역패권의 악습을 청산하는 지역 갈등의 해소, 금권정치로 얼룩진 정치계의 정화를 위한 선거공영제 실시, 친민적이고 문어발적인 재벌에 의한 국민경제의 종속화에 대한 근원적 해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조

성된 30조원에 육박하는 지하자금의 근절, 소득 1만불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인간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복지의 제도화, 온통 서구문화로 얼룩진 우리의 극적없는 문화생활에 정체성을 확보하는 자주문화의 복원,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공고화하는 것 등 수많은 종류의 민족사적·시대적 보편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유발하여 국민의 에너지와 동원시킬 수 있는 지도력이 선결조건이다. 바로 여기에 차기정권의 자격론이 정권 정통성을 기반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게 된다. 우선 정통성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차기정권의 핵심주체에 대한 자격론을 제시하였다.

2. 정통성과 정당성의 개념화

기존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민주화, 생산성, 효율성, 혁명성, 선거, 경제발전, 민주주의, 대외적 독립성, 기초생존권의 보장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정당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폴스비와 그린스타인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당성의 근원이 주로 선거정당성, 혁명정당성, 민족적 정당성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들의 정당성 분류는 보다 포괄적으로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의외의 지배를 받았거나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한 제3세계의 역사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성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를 대신하여 글쓴이는 정당성을 권력뿌리정당성 또는 역사정당성, 권력창출정당성, 권력행사정당성의 세 범주로 나누어 분석적으로 정당성을 개념화하였다.

첫째 권력뿌리정당성은 정권을 구성하는 핵심주체(주요 대통령)가 정권창출 이전에 당 시대에서 민족사적으로 요구되는 핵심과제들에 대한 실천행위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기준에 의한 정통성 판별은 정권 핵심주체가 정권창출 이전에 적극적으로거나 최소한 소극적으로 당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사적 과제에 대한 실천행위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핵심주체에 권력뿌리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권력창출정당성은 권력창출 과정이 여러 가지 경기 규칙 가운데 얼마나 정당한 경기규칙 하에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따른, 곧 국민을 진정 대표하는 것이냐에 따른 정당성을 가능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창출을 위한 경기규칙 자체의 공정성, 경기규칙 제정과정의 정당성, 그 경기규칙이 시행되는 절차정당성으로 나누어진다. 세번째 권력행사정당성은 민족사적 의제나 세계사적으로 당대에서 핵심적이고 보편적 과제라고 일반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과제의 구현 정도에 의해서 또 일반적인 권력행사에서 얼마나 합법성, 민주성, 민중성 그리고 도덕성을 구비하였는가 등에 의해 정당성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민족사적 핵심과제의 실현성과 보편과제의 실현성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 두가지는 서로 중첩될 수 있지만 핵심과제의 경우 정권창출 이전부터 민족사적으로 최소강령 수준에서 실현이 요구되는 공동적 과제로서 미완의 과제를, 보편과제는 장기적인 민족사의 구도 하에서 이월된 것이라는 요지는 당대에서 대두된 과제로서 국민 일반의 동의를 수렴할 수 있는 과제를 일컫는다. 이 중 전자의 실현성은 권력뿌리정당성과 밀접히 관련되며, 후자의 경우 그 보편과제가 인류보편사적으로 정당하고 국민 일반의 동의를 얻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고 또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현 과정에서 합법성, 민주성, 민중성과 도덕성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정당성 판별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정책 가치로 내걸었던 김영삼정권이 4.26총선후 여당 당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것은 바로 합법성이나 도덕성을 상실한 전형적인 권력행사라고 볼 수 있다.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안기부의 선거 불법개입으로 일련된 초원복직사건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법적 단죄를 받기까지 몇 오지러 국회의원, 치안총책임자 등으로 악전고투한 TK세력의 독주를 PK세력의 독주로 대체했다는 등의 많은 지적들은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한 보기이다. 또한 한총련탄압 당시 성폭행 등 불법적인 불법행위의 여파인 국가보안법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기치로 내걸면서 스스로 법을 짓밟는 합법성을 상실한 행위이다. 더구나 야당 시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던가 오히려 국가보안법 심의 '천황고무죄'와 '불교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돌려주려는 국가보안법 개악은 탈 도덕성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12.26노동법 개악 등의 반민주성·반민중성과 더불어 모두 권력행사정당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대표적 경우이고 이러한 평가는 정권의 정당성 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

정통성과 정당성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초역사적 기준을 설정하여 영역별 정당성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물리적인 접근인 것 같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 정도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세 영역의 정당성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3. 정통성에 관한 정치권의 논의

정치권에서 주장되는 정통성은 앞서 제시한 정당성 개념 정의의 세가지 영역에 조응한다. 첫째는 정통성을 권력창출 과정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권력창출이 주권재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사쿠데타나 이승만의 백색쿠데타 및 불법·부정·금권

선거에 의해 일관되게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현정권이 유별나게 문민정부임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권력창출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었음을 중시하는 정통성의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둘째는 권력창출이전에 핵심주체 세력의 역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역대 남한정권의 정통성을 능가한다는 주장이나 최형우, 김상현 등이 이야기하는 과거 민주화를 위한 실천행위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후계자나 정권핵심이 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권력주체에 대해 당 시대의 역사적 요청에 부응한 과거의 실천행위를 중시하는 정통성이 성격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정통성을 이에 국한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너무 단편적이다.

셋째는 박정희의 개발독재론을 찬양하면서, 일제시대에 친일 및 민족반역행위를 자행하여 권력뿌리정당성이 전혀 없었고, 군사쿠데타라는 불법행위로 정권을 출범시켜 권력창출정당성이 전혀 없더라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나라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곧 '나라 살리기'라는 업적을 쌓음으로써 박정희는 정통성을 가진다고 하는 해석이다. 전두환 역시 스스로 경제발전이라는 결과관으로도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결과론적 역사해석을 내렸다.

이와같이 각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여러 당사자나 정치권의 주장과 기준은 한곳으로 편중되고, 자의적이며, 때로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공동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권력뿌리, 권력창출, 권력행사 정당성을 포괄시켜 종합적으로 정통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정통성을 기준으로 한 차기정권 자격론

우선 대권주자와 권력뿌리정당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민주화 정착, 과거청산을 통한 민족정기의 확립, 통일기반 조성 등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오늘날의 민족사적 시점에서 탈당통성론이 소극적 기준으로 차기 정권의 자격론을 제기하는 것은 권력뿌리정당성을 정통성의 구성 요소에서 배제하려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당대의 민족사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권은 7·80년대의 절박한 민족사적 요구인 민주화, 민족통일, 민중의 이익실현기운에 최소한 한 분야이라도 실천행위에 적극적으로 종사한 경력자만이 권력뿌리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정통성의 두번째 범주인 권력창출정당성 중 경기규칙 자체의 정당성이다. 대통령중립제의 권력구조와 보편선거라는 경기규칙을 지닌 현행 구조는 수조원에 가까운 대통령선거비용이 드는 등 금권선거와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여당에게 엄청난 유리한 지지를 제공해 주는 불공정한 경기규칙이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은 선거공영제를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을 필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다른 하위 범주인 경기규칙 제정 과정의 정당성으로 눈을 돌려보자. 오늘날 정치계의 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자체의 변화를 피하는 것으로 경기규칙의 판을 바꾸어 버리는 것으로 현정시상 개헌이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것이 당연하며, 나아가 2/3의 의결 정족수라는 경기규칙 개정의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내각제로의

개헌논의는 제도 자체의 특성, 한계, 남한 현실에 대한 적실성 등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 여러 정파의 정략적인 이해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각제 논의를 정파의 이익이란 정략적 차원에서 느닷없이 제기한 대선주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하위 범주인 경기규칙 집행과정의 절차정당성은 선거라는 절차가 얼마나 공정성과 자유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의 경우 경기규칙 자체가 여당에게 불균형적으로 높은 프레임업을 주고 있는 원초적인 결함과 금권친화적 관행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친분관적 대선주자에 대해 금권선거를 자행하지 않겠다는 여당 측의 대선주자도 없거나 야당 측에서도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로 권력행사정당성은 정권이 탄생되었을 때 민족사적 핵심과제와 당대사적 보편과제의 구현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구비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의 평가는 선결조건이므로 어디까지나 사전 예측의 수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객관성을 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아직까지 정당별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선거공약, 정당의 정강, 과거 정책 등을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없어 더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잠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첫째 범주는 민족사적 핵심과제의 실현성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선주자는 장기적인 민족사의 구도 하에서 민족, 민주, 민중의 세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최소강령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통일기반 조성, 지역패권에 의해 조성된 지역갈등의 해소, 민주화의 공고화, 민중의 인간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실시, 민족 자주문화 창달, 자주적인 외교정책 등을 실현시키는 민족 자주화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 권력행사정당성의 제2 영역인 보편과제 실현정당성의 평가란 3급 과두지배체제의 종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근절, 친민적이고 문어발적인 재벌에 의한 국민경제 종속화에 대한 근원적 해결, 90조원에 육박하는 지하자금의 근절, 북한기근 방지를 위한 식량지원, 관료주의의 극복 등을 과연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제들의 실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권의 도덕성, 합법성, 민주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5. 새로운 정통성 개념의 효용

이상으로 정통성을 기준으로 한 차기정권 자격론을 제시했다. 이 정통성의 개념은 정권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 정권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한 준거틀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의 자격론 등에 사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과 가능성은 많다.

무엇보다도 자격론의 핵심은 더욱 체계적이고 보편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고당적인 지식인이 쉽게 빠지기 쉬운 알뜰한 정치허무주의를 넘어서서 역사주체의 하나로써 책무를 이행하는 유가적 지식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이 글이 조금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부)

동약로

권리

"1백 17명의 대의원 중 30명이 참석해 정족수 부족으로 정기총회는 무산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8일 도서관 3층 시청각실.

오류 5시부터 시작된 총대의원회의 정기총회엔 30분이 지났음에도 빈자리를 지키는 화과 팻말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띈다.

이번 총회엔 총학방증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만, 참석할 소수의 대의원의 모습에서조차도 별다른 관심을 읽을 수 없다. 총학방증사업, 경주의 자치권 확보, 총장의 간담회 등 간단한 사업경과 보고가 끝나갈 무렵에도 나서서 하며 장난을 하거나 귀속담을 주고 받는 대의원들이 간간히 눈에 잡힌다. 이렇게 20분이 지나갈 즈음, 별명까지 그치지 않은 회의장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장의 적막을 깨고 울려 귀를 세우게 한다. 목소리 나간 지금 8천만의 은방울 학우들의 목소리가 시청각실에 맴돈다. (이수경 기자)



고 나선 것이다. "사도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방학때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소수의 대의원이 입을 열기 시작한다. 6월까지 물조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다짐을 받아들여는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부총학생회장은 갑작스런 질문공세에 의아한 표정을 보인다. 이제까지의 분위기와는 달리 그나마 학생대표라는 인식있는 학생이 있어 총대의원의 총회의 질의 응답시간을 무색하게 만들진 않았다.

학부제 시행으로 학부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왜소해지는 편 요즘 이들의 권리를 찾아줘야할 대표자들은 이번 총회에서도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다. 학생들의 이의대변들이 단지 개인적인 이유로 무시되고 회의가 끝난 뒤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간 지금 8천만의 은방울 학우들의 목소리가 시청각실에 맴돈다. (이수경 기자)

B빙그레



아이디어가 곧 스폰서지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동아리의 날은 오월 축제라지요?

쌈박한 행사 아이디어 내라, 스폰서 구하라 정신없지요?

어느새 옆 동아리는 행사도, 스폰서도 뱅뱅하대지요?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동아리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머리를 모두 모아 아이디어를 짜내보면 어떨지요.

초코지오가 스폰서가 되어드리지요.

초코지오 ChocoGio

리얼 초코렛과 촉촉한 케익의 신맛한 조화, 초코지오가 초코케익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동아리 축제 행사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초코지오 축제 1 - 초코지오가 스폰서지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동아리 축제행사를 공모합니다. 우수 행사를 선정하여 한 동아리 당 최고 1백만원의 후원금을 드립니다. (10월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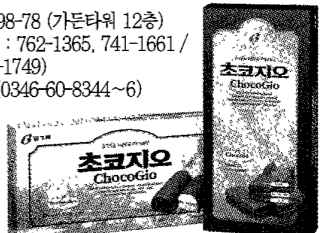
초코지오 축제 2 - 초코지오와 사랑을 나누지요! 사랑과 인정이 담긴 따뜻한 축제 행사에 초코지오가 동참합니다. 행사 취지와 행사 계획을 보내주시면 우수 동아리 10팀을 선정하여, 초코지오를 지원해드립니다.

참가대상 : 전국 대학 학생단체 또는 학교의 인정을 받은 동아리
공모기간 : '97. 4. 3 ~ 4. 25(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응모요령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세요
신청서류 : 행사 주최 단체(동아리) 소개서 1부
행사계획서 1부(A4 5매 이내 자유형식)
-학교(주소), 행사 내용 및 목적, 일정, 참여예상인원, 시행장소, 행사 예상 경비, 대표자 연락처

심사일표 : '97. 5. 1 (대학문화신문 지면발표 및 개별 연락)
기타특정 : 선정된 동아리에는 행사에 필요할 경우 티셔츠와 모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제출 및 문의처
· 서울시 종로구 윤리동 98-7 (가든타워 12층)
대학 문화 신문사. (Tel : 762-1365, 741-1661 / Fax : 744-8973, 762-1749)
· (주)빙그레 마케팅팀 (0346-60-8344 ~ 6)

주관 : 대학 문화 신문
후원 : (주)빙그레



◆ 동대신문 창간 47주년 기념 좌담회 — 동국의 미래와 동대신문의 역할

‘참사람 열린교육’ 실현 ... 동양학의 본산으로 거듭나야 시대변화 주도하는 당당한 대학언론으로 영원하라

사회자 :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는 지난해 개교 90주년 기념행사를 훌륭히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평가와 대학종합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안으로는 교육환경의 발전적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밖으로는 사회적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다했습니다.

는 유일한 수단이고 통로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보광 : 동국의 미래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참사람 열린교육’이란 말로 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주체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동참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체 발전기금의 2%정도만이 학생참여인데 그 대부분도 경주캠퍼스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백주년 기념사업 본부에서는 1인 1과운동 등을 펼쳐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동참하려는 의지가 모였을 때 동국발전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학생들의 여론수렴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일산캠퍼스 이전계획에 대해 최첨단 설비를 담보하고 있음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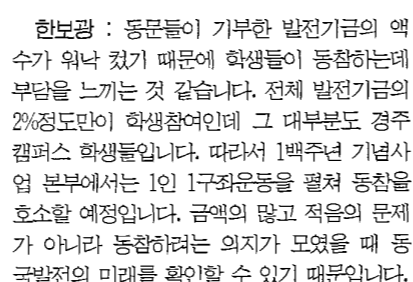
(한보광 교수)

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불교사적인 ‘인제’를 보면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위’가 ‘열린 것, 벽이 없는 것’을 뜻한다고 볼 때, 그러한 대학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무위’를 ‘열린교육’으로 하고, ‘자연’을 ‘참사람’으로 했습니다. ‘열린교육’이란 ‘벽이 없는 교육, 상이함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교육’을 말하고 ‘참사람’이란 ‘더불어 사는 사람, 자야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람 열린교육’은 진학이념을 한마디로 담아내고 있으면서도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관이 잘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캠퍼스는 한국학, 경주캠퍼스는 전통관공문화, 일산캠퍼스는 자연과학의 특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재원확보가 요구되는데, 재원확보를 위해 재단, 학교, 동문이 합심했고, 여기에 불교계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1백주년 기념사업 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교가 1백60개 대학중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자원이 다섯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풍부하다고 합니다.

임호일 : 한국학의 특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 되었던 특성화계획에 보완되어야 할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성화로 가되 종합대학의 성격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속의 한국학’이 되려면 다른 학문과의 연계속에서 상호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이미 작년 한해동안 3백25여이라는 기금을 성공리에 모금하였으며 이는 교직원들은 물론 동문과 불교계, 심지어는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문들까지 활발히 동참해 준



사회자 : 그렇다면 학교발전에 임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재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법산 : 개교 90주년은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역사이지만 역사지체에 묻혀서는 절대 안됩니다. 불교는 과거를 중심에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오늘이 시간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가에 대한 현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 껍질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파괴력이 없는 진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이법산 교수)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1백주년을 향해 역사를 새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임호일 : 학교발전방안에 대한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과정에서 보완점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구성원의 자발적인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살아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급변하는 사회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마음에서 워낙 앞서가는 바람에 재주체에게는 다소 소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교수



(임호일 교수)

불구하고 서울의 외곽지역이라는 이유때문에 진척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에는 여론화와 공론화가 필수적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일을 여론화한다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행정에 대한 공개요구들이 많지만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흘러가는 흐름대로 진행하되 발전된 문제점은 긍정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병조 : 우선 학교당국, 총학생회 측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협과 협상의 대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관계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스승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고 스승은 포용력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학교는 대립적이어서는 안되는데 오늘과 같은 관계에 이른것은 서로간의 불신이 너무 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학생들이 스승을 불신하는 것, 스승이 학생을 못마땅하게 하는 것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큰 못 한데 이것은 서로간에 상처만 줄 뿐 동국발전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법산 : 교수가 학생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지 못한 학생이 의외로 많은데 교수가 의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고 긍정적인 면을 느끼게 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애교심을 가지고 의식구조를 스스



로 바꾸어서 학생들에게 활로를 모색해주어야 합니다.

임호일 : 현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학교와 학생이 대치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진보라는 이름에 너무 경직되어 있는 듯합니다. 학생들은 투쟁일변도의 운동방식을 극복하고 진정한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교수들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사회자 : 지금까지 동국발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교 90주년을 위해 동대신문은 창간 4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동국역사와 항상 함께해 온 동대신문은 동국 1백년을 앞두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신문의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80년대 시대가 주었던 대학신문의 특성도 어느새 사라져버린 지금, 대학신문은 다변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속에서 대학과 마찬가지로 ‘특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태섭 교수)

동국발전을 위한 동대신문의 역할에 대해, 혹은 부족한 점에 대해 일깨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조 : 동대신문의 빛나는 발자취에 대해서는 동국인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 동대신문의 가장 큰 특성을 들자면 정치적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눈만 뜨면 온갖 언론에서 사회의 비리 모순에 대해 떠들어 대고 동대신문 역시 정치성전의 장이 된 듯해 눈을 뜰 곳이 없어집니다. 동대신문

은 동대주변의 미담을 많이 발굴해 동국인의 긍정적 사고를 이끌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법산 : 기대되는 신문, 보고싶은 신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신문에서 학교정보를 얻는 종합정보지가 되어야겠지요. 미담을 많이 담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소식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동국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지루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났으면 합니다.

한보광 : 우선 동대신문의 동인들이 현재 언론계에 많이 진출해 있고 특히 불교계의 언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타하고 싶은 것은 학생기자들이 좀더 신중히 기사를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가장 신중히 글을 쓰는 경우가 대학신문에 청탁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만큼 실험정신을 높이고 내용 하나하나에 신경써 글을 쓰는 것에 비해 일부 기자들은 그만큼의 주의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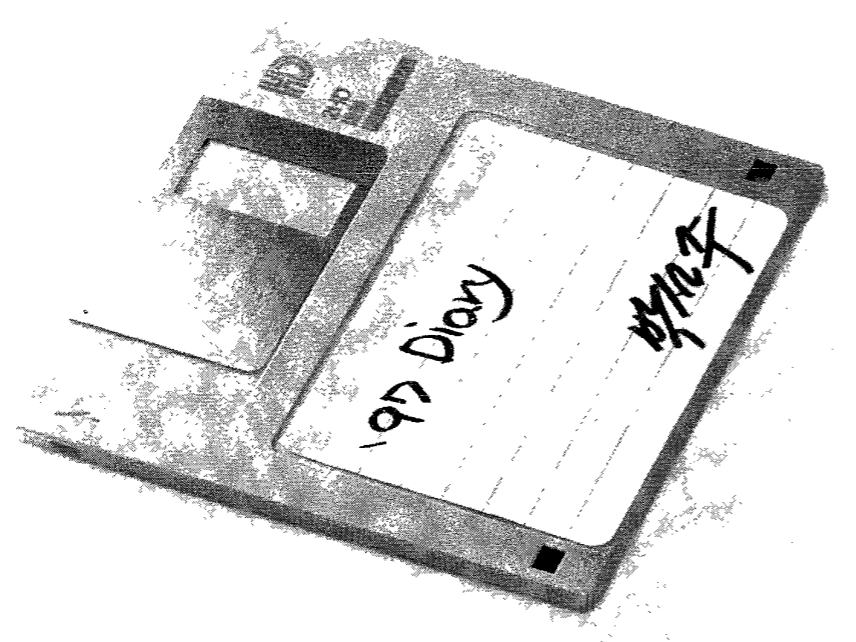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교수들의 건강 상태를 취재한 기사는 아주 바람직했으며, 역시 동대신문답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잘하는 점은 잘하는 대로 소개해주고 못하는 점은 철저한 취재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해서 학교를 일깨워주는 것 바로 그런 역할이 동대신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동대신문의 독자는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80대는 동인부터 산속의 스님들까지 동대신문을 통해 동국의 소식과 불교계의 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걸어주길 바랍니다.

임호일 : 위기는 거꾸로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학신문에게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아카데미즘을 되살렸으면 합니다. 동대신문은 집권적으로 학살은 단이 부족한 듯합니다. 학술관련 정보를 많이 안내해주고 신간안 내도 보완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본교 교수들과 학부생들의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동국대학교는 1백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해 재주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동국을 세계명문대학으로 우뚝 세울 날을 기대합니다. 저희 동대신문사도 최선을 다해 동국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동대신문」 창간 4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컴퓨터와 마주 앉아 쓰는 일기. 일기쓰는 시간마저 아끼려는 듯 두 손으로 부지런히 차관을 두드려냅니다. 이런 일기라면 남에게 들길 일도 없고 보관하기도 쉽겠군요.

“펜은 Keyboard보다 향기롭다”



깊은 밤, 커피 한잔을 준비해 두고 하루를 돌아보듯 펼쳐드는 일기장. 하얀 일기장을 한줄 한줄 채워가는 동안 방안 가득 커피향이 퍼지고 그렇게 하루가 마감되어 갑니다.

문득 지난 날을 돌아보고 싶을 때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들고 한장 한장 넘겨보는 느낌은 분명. 커피 한잔없이 컴퓨터에 써내려간 일기와는 다를 테지요.

한잔의 커피로 충만해지는 생활. 동서식품이 가꿔갑니다.

- 향기로운 생활문화를 동서식품이 이끌어갑니다
- 동서 커피문화상 ●맥심배, 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
- 동서음악제 ●동서 장학회 설립, 운영
- 국군 부대 자매 결연



동대신문사의 일주일은 월요일 신문배포, 화요일 편집·평가 회의, 수요일 취재회의, 목요일 1차 기사 마감, 금요일 데드라인, 토요일 초판, 이렇게 쉴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대중 언론 창출 그 한길에 가는 기자들의 일기를 들여보자. <편집자>

기자일기에 담긴

동대신문사의 일주일

월

오늘 아침에는 자정종 소리가 그렇게 야속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몇번을 이불속에서 뒤척이다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보니 세상에나 벌써 열시가 넘어 있었다. '앗! 큰일이다. 오늘은 아침에 해야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학교를 향하는 버스안에선 심장이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지난주에 만든 신문을 배포해야 하는 날인데 깜박 잊고 있었다. 지난주에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신문 배부가 늦어져 형들에게 야단을 맞았는데 이번주에도 그렇게 된다면 어쩌하지?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학교에 도착해 보니 멀리서 용달차가 보인다. 어째 어디서 많이 본듯한 모습인데... 세상에 형들이 신문을 나르고 있는 것이었다. 가방을 돌려 맨체 용달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때 이만큼 달렸더라면 아마 공책은 모두 내 차지였지 싶다.

도서관 앞에서 신문을 내리고 있는 형들 옆에 슬쩍 끼어서 신문을 빌렸다. 오늘은 웬일인지 형이 아무 말도 안한다. 어째 점점 더 불안해 지지만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결심으로 신문배부에만 열중한다.

각 건물마다 배치되어 있는 신문 배부대에는 아직까지 지난주 신문이 남아 있는 곳이 몇 개 되었다. 요즘 신문이 예전에 비해 안 읽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형의 말에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진다. 그렇게 해서 신문배부를 다 마치고 신문사로 향하는데 어디선가 불어 온 바람에 서늘함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땀을 흘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땀흘려 배부한 신문이 독자들에게 읽힌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던 형이 이제야 신문배부의 의미를 알겠냐고 물으시면서 오늘 늦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다.

그 동안 신문을 배부하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오늘에서야 우리가 왜 신문을 배부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것은 매주 월요일자로 3만 독자와 만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중요성을 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비로소 난 동대신문을 알게된 것인가?

<이해경 기자>

화

아침에 일어나 달력을 보고 요일을 확인한다. 화요일이다. 지난주 신문 평가회의와 다음주 신문 편집회의가 있는 날. 벌써 이렇게 되었다 월요일에 신문을 발행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또 한주의 일정이 시작되구나. 신문사에 출근해 오늘 할 회의준비를 한다. '배르릉' '배르릉' 전화벨소리가 내부 전화벨소리이다. 직감적으로 아니 일삼적으로 보아 경주신문사의 전화이다. 편집회의때문에 그렇겠지! 이래 짐작하고 전화기로 달려간다. '하이럼' 생각하는 것 있어? 란 음성이다. '뭐 그냥 여러가지지'. '그냥 확인해봐!' 이따가 회의 끝나고 다시 확정된 것 가지고 통화하자. 안녕!

후~, 이제부터 본격적 이구나. 경주신문사의 전화로 오늘 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매주 똑같은 회의일정이지만 내용까지는 똑같을 수 없으니 자리에 앉아 생각하고 있던 아이템들을 정리한다. 이것 저것 골똘히 신문도 펼쳐보고 하지만 식상하기만 하다. '하이럼 있어? 똑같은 질문을 같은 부서기자에게 또 듣는다. '너는? '몇 개 생각한 것 있어? '이따가 말해보

자' 하며 자리를 떠버린다. 다들 바쁜 모양이지. 아무래도 회의가 두개나 있는 날이니. 나도 이번에 나온 신문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항상 아쉬운 것이 많이 나오고, 편집장님 말대로 평가를 위한 평가가 패서는 안되는 데... 회의가 시작되고 나니 다른 기자들 또한 뭐가 그리 아쉽고 불안이었던지 평가하면서 말들이 많다.

곧이어 편집회의가 바로 시작된다. 아까 준비해온 아이템들을 서로 공유하고 질책도 하며 다음주에 실을 기사들을 체크한다. 한 주 신문의 내용을 정하는 자리이니만큼 회의가 일찍 끝나지는 않는다. 서로 논의를 하고 결정됨과 동시에 서울, 경주 신문사의 전화벨은 쉴새 없이 울려 퍼지게 된다. 또 그 전화벨소리를 들으면서 하루가 정리됨을 느낀다. 벨소리로 시작해 벨소리로 끝나는 하루. 이제 그 하루를 정리해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동대신문사의 내일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

<최정식 기자>

수

새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면 난 '어떻게 하면 수요일 공강시간을 최대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왜냐? 수요일엔 취재회의가 있기 때문에... 출입처를 처음 받았던 수습기자 시절,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다. 답장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뭘 물어봐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보면 많이 찾다고 해야 되나? 이런 그 어느 곳도 두렵지 않으니 말이다. 기사캐리가 있는 곳이라면 저 세상도 O-K!

인제나 수요일 아침이면 취재원에게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보통때 보다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야 한다. 남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에겐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학교에 도착해 오전 수업을 마치고 대략 2시경 취재를 시작한다. 항상 기업을 넣고 다니는 개만썬 취재수첩과 펜을 손에 들고 학생회관에서부터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까지 전 동악을 누빈다.

"뚝뚝뚝, 동대신문사 기자인데요. 취재하러 왔습니다" 계산관에서 학원관, 체육관, 본관, 다량관... 등을 정신없이 뛰어 다닌다. 높고도 높은 동악.

숨이 차고 힘이 들지만 바쁘게 뛰어 다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면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취재를 돌다가 쉼터였던 점도 몇몇 기억이 있다. 나의 질문으로 취재원이 난감해 할 때 전율을 맛보았다. 이것이 기자의 맛 이라고나 할까?

학내 곳곳의 소식을 취재수첩 속에 담아 신문사로 가면 오후 6시에 취재 회의가 있다. 출입처를 돌지 못한 기자는 회의실에 한바탕씩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만큼 역시 기자의 생명은 취재. 발로 뛰는 것! 그 자리에서 각자가 취재해 온 것을 말하고 관련부문을 교류를 해 가면서 어떤 기사를 쓸 것인지를 정한다.

일정이 끝나면 종종 선·후배, 동기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는 술자리가 기다려 있다. 시원한 맥주로 하루의 피로와 고민을 가시고, '똥'하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내 수요일의 막은 내린다.

아침, 취재부장님의 한마디가 빠졌군. "너들, 기사마감 빨리 안하면 알제?"

<김용환 기자>

목

창 밖에는 해가 누워누워 넘어가고 있다. 벌써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구나. 목요일... 지금부터 난 또 원고지와의 전쟁을 치르겠지? 휴... 오늘은 1차 기사마감 날. 그리고 회전무대를 마감하는 날이다. 참, 또 하나 빠졌구나! 보충취재회의, 어제 미처 들지 못했던 출입처에 다녀오고, 기사체계를 끝낸 후 내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불을 타는 것일까? 모든 것에 의욕이 갑자기 사라지고 어딘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하지만 그런 마음의 위상승함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 뒤로 미뤄둔 채 오늘 난 1차 기사마감을 해야 한다.

물끄러미 창 밖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수업을 마치고 재각기 갈 길을 찾아 하나 둘씩 학교를 빠져 나가고 있다. 예전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용해진 학교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 신문사 생활이 익숙해 졌나보다. 나도 모르게...

어느덧 어둑어둑해져 창 밖의 원고관이 흐려질 때 쯤 형들, 후배들, 동기들이 하나 둘씩 신문사 문을 열고 물러가기 시작한다. 오늘따라 에이리 신문사 식구들이 대단해 보이지지 모르겠다. 일주일의 바쁜 일정에 힘들어서 하면서도 동기나 후배의 지친 모습을 보면 언제나 다독여 주며 서로 서로를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지내는 이 사람들은 진정한 삶을 알고 있는 듯하다.

이 때, "아! 너 뭐하고 있는거야? 기사마감은 다 했어?" 편집부장님의 한마디가 오랜만에 가져온 나의 작은 시간을 깨버리고 만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동기들은 기사마감 한다고 정신이 없어 보인다. 신문 넘기는 소리, 원고지 찢는 소리, 간간히 들리는 한숨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마치 밤의 고요 속에 묻혀 버린 듯하다.

이렇게 오늘 또, 하얀 새벽을 보겠지? 졸린 눈을 깜빡깜빡 거리며... 휴... 이제 정말 땀 생각하지 말고, 기사써야겠다. 그리고 날 회전(?)시키기는 회전무대도 함께...

<이수경 기자>

금

오늘은 금요일인데 하늘이 무지무지 맑은 거야. 게다가 바람은 얼마나 시원한지... 금요일날 날씨좋은데 왜 신술이냐? 왜냐하면 금요일은 기사마감을 해야하기 때문이지. 아침 일찍부터 학생회관 문단을 때까지 해도 하루가 짧아서 밤새기 일주일 바로 그 날. 그런 날 날씨도 화창한데다가 우리과가 오는 단청로 남산에 막걸리 마시러 간다! 에이! 차려리 비나 와라!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정말로 비가 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주룩주룩, 일기에 보드 빛나고 비가 온거야. 남산에 막걸리 마시러 간 동기들하며, 명동에 쇼핑하러 간 친구들도 뿔뿔 비를 맞았겠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난 너무 좋아서 회심의 미소까지 지어. 비 오는 날, 분위기가 기어오르는 것 같아 좀 한 번 잠깐 보고 싶었지만... 꿈! 난 창문이나 없는 신문사 컴퓨터실 구석에 앉아 취재수첩을 뒤적이며 컴퓨터를 두드려야 한다고! 그제 기사나 쓰자. 기사를 쓰다보니 취재가 부족했나 봐. 동국관까지 가이하는데 비는 오지 우산은 없지 어쩔 수 없이 비를 훌쩍 맞으며 뛰어갔다 왔지 뭐. 그리고 열심히 기사를 썼지. 그런데 배배가 울리는거야. '아! 오늘 동문회원이 알지! 이

번에도 안오면 언 제 재명이야!" 하긴 2학년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났으니 그럴 만도 하지 뭐... 그럼 어떡해! 금요일마다 동창회를 하는데... 그러나 똥을이랑 포기하지 않는거잖아. 단 한 번이라도 동창회에 가보자는 신념으로 난 수업도 빼먹고 기사를 썼지. 그리고 난 모험을 강행했어. 동창회 시간이 다가오자 난 살짝 신문을 빼쳐나왔지. 형들한테는 보충취재하러 가는 척했지. 동창회에 갔어. 아! 이렇게 동창회구나. 소주도 몇잔 걸치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신문사에 정박해 있어야 하는 기사마감날 이럴 수 있나... 그 사실만으로 그 못생긴 동창들이 다 예뻐보이는거야. 그러나 그것도 잠시, 30분도 안해서 배배가 울리는거야. 349182558282. 몇초후 349182558282. 잠시나마 갈등을 때렸지만 결론은 뻔하지 뭐.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자리를 털고, 왜 결론이 뻔하냐? 금요일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거든. 바로 조급한데다가 해도 이 세상에 없던 일이 내에 의해서 바로 오늘, 기사마감과 동시에 태어나는 거잖아. 알았지? 금요일은 역사창조의 날.

<심민서 기자>

토

다른 친구들은 수업이 없는 토요일. 난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바쁘다. 아침부터 신문을 만들어야 하니! 지하철역 층무로 내려 달려간 곳은 소리롭. 바로 이곳에서 신문을 편집하고 제작한다. 나보다 먼저 와있는 형들과 동기들. 벌써 작업을 시작했는지 그들은 손에 신문 판을 쥐고 있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지난 신문에 레이아웃을 그리는 것이다. 제목 넣을 공간과 사진 공간을 비우는 등... 그리고 어찌해 늦게까지 쓴 기사와 청탁한 원고가 들어있는 디스크를 레이아웃한 신문과 함께 편집실에 넘긴다. 그러면 매킨토시를 이용해 컴퓨터로 편집한다.

'아! 아직 만들어진 원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났다. 백팩집은 원고가 하나라도 없으면 판을 짜기 힘들다. 빨리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 '도, 사진이 없네' 이반엔 재빨리 신문사로 뛰어갔다. 겨우 찾아서 스텝실에 넘기고, 시간은 왜이리 빨리만 가는지, 제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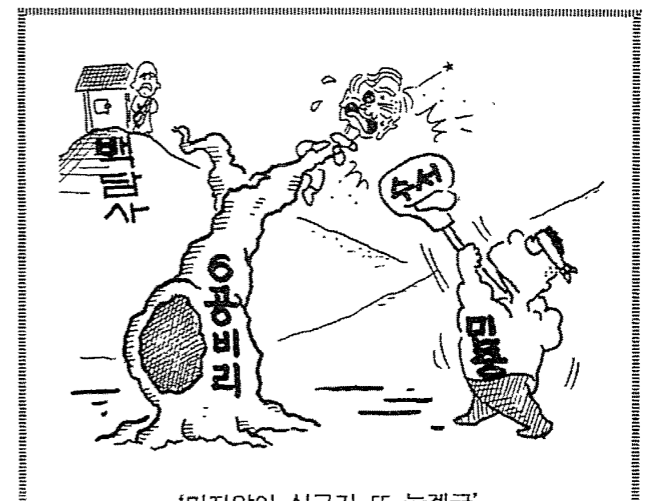
교정은 세 번 본다. 초교한 것이 나오면 제목을 멋있게 뽑고 글씨체가 잘 못되지 않았나 오지가 나오지 않았나 시어머니보다 더 신경 쓸 일이 많다. 어느덧 제작시간이 왔네. 저녁을 간단히 먹고와서 작업을 계속한다. 재료가 나와도 오지는 계속 있고, 제목이 마음에 안들고, 이 기사는 왜 이렇게 넘치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한 후 편집실에 재교판을 넘긴다. 시회 부나 취재부는 끝나는데 난 뭐야. 삼교에서는 사진까지 넣어 완전한 편이 나온다. 최종 확인은 주간 교수님께서 하신다. 내가 미처 못본 오자를 찾아내셨다. 별문제 없을 때는 O.K. 아, 이제 화면상으로 고치기만 하면 끝이구나! 편이 다 O.K. 확인을 받으면 판을 필름으로 만들어서 인쇄를 하면 신문이 나오는 것이다.

소리골에서 나오니 깜깜한 밤. 남들은 모를거야, 이 부딪침을. 내일은 하루 종일 자야겠다. 툴툴... <오민택 기자>

다시 보는 만평



제 1005호 (88년 11월 2일자) - 이혁발



제 1066호 (91년 2월 27일자) - 송태영



제 1160호 (94년 11월 2일자) - 박현진



제 1192호 (96년 2월 26일자) - 강성수



제 1215호 (97년 1월 1일자) - 고대성

문화단신

영화이야기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 80년 대 이후 자국문화권을 대표하는 감독들중 여성영화인의 부상은...

◆제2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 1997... 국내의 우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소개로 국내 다큐멘...

음악이야기

◆97 N.E.X.T의 시나리오... 하나의 그룹이면서도 멤버가 각각 다른...

◆김덕수 패 사물놀이 공연...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본교 경주 캠퍼스...

◆영화진흥법 개정

사전심의제도에서 등급심의제도로... 등급의 전용관은 여전히 불허 국제경쟁력 가질 수 있는 투자 활성화돼야

민병록

(예술대 연극영화과 교수)

국회는 지난 3월 17일 본 회의에서 1백21 대 71의 표결을 거쳐 영화진흥법...

에서는 이미 30년부터 완전등급제도를 도입해서 영화감독들에게는 창작의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등급을 세분화해서...

이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영화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화법을 개정하고 영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영화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화법을 개정하고 영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고글

영화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를 보고 '기술적 진보가 인간 삶의 진보와 일치하지 않는다'

'무는 무한과 같다'와 '무한은 무와 같다' 이 두 명제는 분명 차이가 있다. 문맥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분명히 차...

탄생시켜 내는데, 꿈을 잃은 전체 소년의 광기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게 되...

는 인간과 기술이라는 측면을 보면 인간의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

를 가지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 영화였다. 영화 속의 대사 "무는 무한과 같다"...

달이나 천강에

부실아파트의 한 원인



백숙미 (사범대 역사교육과)

얼마전 새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했다. 분양신청을 할 즈음 경우에는 몇몇 회사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다...

박동연 자연대 기공교육과 교수

를 가지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 영화였다. 영화 속의 대사 "무는 무한과 같다"...

알립니다 '문화유산시리즈 4편'은 분사 시점으로 한회 씩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편집자)

Advertisement for Donga Construction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nd text promoting their global construction expertise and advanced technology.

총학 학생수첩 지급 늦어 마찰 예상돼

수첩제작 사업 투명성 보장되어야 할 터

개강과 함께 지급됐어야 할 학생수첩이 오늘(14일)부로 지급됨에 따라 수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학은 지난 4일 수첩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전날에 각 단대 총무들이 수첩의 견본을 보고, 내용이 많이 빠졌고 지퍼 부분에 문제가 있어 수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지급되지 못했다.

이로인해 총학은 사과사과를 통해 "보수작업을 거쳐 수첩이 11일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지만, 지난 11일에도 수첩은 도착하지 않았으며 이날 수첩을 받으러 온 불교아동학과 학회장과 수첩 지급 문제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과 학회장들은 "학기의 1/3이 지나도록 수첩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환불을 해달라"

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각 학과 차원에서 수첩지급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같은 날(11일) 오후 6시 총학은 비상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를 개최했다.

중앙위를 통해 각 단대 및 자치기구장들은 "수첩지급이 지금까지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우들에게 오늘(14일)까지 중앙위 차원의 사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합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중앙위 공동명의의 사과문 작성 △수첩지급시 총학 명의의 사과문 배포 △각 단대 중앙위에 총학 생활장이 참석해 입장표명을 할 것 등이다.

학생 수첩지급이 지금까지 연기된 것은 중앙위를 통해 수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

이다. 지난해 12월 말경에 열린 중앙위에서 총학생활장은 '개구쟁이'와 '세일' 기획의 2가지 견본을 제시하면서 수첩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이때 총학은 세일기획의 제품은 4천 6백원 대인데 8천부 제작시 초과되는 권당 6백원의 금액은 총학 사무국장의 장학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수첩 제작은 총학의 고유사업이 아니라고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 후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좀더 상세한 시장조사의 필요성이 지적됐고, 계속적인 회의 속에서 총학회장은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지퍼가 달린 4천 6백원대의 견본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총학이 제시한 수첩과 의뢰가 동일한 수첩이 '유진'이라는 회사에서 8천부 제작시 세일보다 1천 1백원이 적은 3천 5백원대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총학이 유진측과 만나는 결과 대금지급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유진과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 두차례 회의가 더 열리면서 총학측은 유진과 세일을 제외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수첩을 제작하기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수첩문제는 총학 사무국장에게 일임하게 되었고 이로써 유진과 세일제품으로 논란이 되었던 수첩제작 문제는 진정 국면을 맞았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총학생활장, 부총학생활장, 사무국장이 참석해 등투와 물조위 및 수첩의 지급까지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해 강행해 이때부터 수첩사업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새로 시장조사를 통해 사무국장이 '화진'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학기가 시작될 지 얼마 남지 않은 지난달 17일이었던

것이다. 중앙위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해 지연된 수첩제작은 현재 질적인 부분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돼 앞으로의 수첩문제에 귀추가 주목된다.

총대 정족수 미달로 정기 총회 무산

총학사업 전반적 질의 이뤄져

총대의원회(의장=이승욱·법(아)4 이하 총대)는 지난 8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본래 이날 총회는 정기총회였으나 총대의원 1백 17명 가운데 30여명만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정기총회는 무산되고, 임시총회 형태만을 갖춘 채 총회 안건 보고만이 이뤄졌다.

총회 안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97년도 예산편성안 보고 △1/4분기 사업보고, 2/4분기 사업 계획보고 △총학의 등록금 부정, 수첩, 물조위위원회 활동보고 및 대의원 질의 등이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총학생활장, 부총학생활장, 사무국장이 참석해 등투와 물조위 및 수첩의 지급까지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해 강행해 이때부터 수첩사업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새로 시장조사를 통해 사무국장이 '화진'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학기가 시작될 지 얼마 남지 않은 지난달 17일이었던 것이다. 중앙위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해 지연된 수첩제작은 현재 질적인 부분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돼 앞으로의 수첩문제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새로 시장조사를 통해 사무국장이 '화진'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학기가 시작될 지 얼마 남지 않은 지난달 17일이었던 것이다. 중앙위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해 지연된 수첩제작은 현재 질적인 부분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돼 앞으로의 수첩문제에 귀추가 주목된다.

했으며, 오는 6월중에 방을 위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의 사업 보고가 끝나자 대의원들은 물조위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자료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첩 부분과 관련해 대의원들은 "수첩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수첩이 지급되더라도 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총학 사무국장에게 충고했다.

한편 이날 의결 안건인 총학 집행부 일괄 인준과 학생 회칙 개·제정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총대 내부의 중앙 위원을 소집하였으며, 오는(14일) 오후 5시 총대 사무실에서 이번 안건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의결 안건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기총회를 통하지 못하고 중앙 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된 것에 대해 총대측은 "앞으로는 단대 대의원회를 활성화하여 대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대의원들이 총대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했다.

지개원 성지순례

지역개발 대학원(원장=김희오·국

제관계학)은 오는 19·20일 양일간 97학년도 제 1학기 춘계 성지순례를 갖는다.

경주를 출발하여 지리산 노고단,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로 이어질 이번 행사에 대해 한 관계자는 "원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가 되고 동국인의 호연자기를 떨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졸준위 임시총회 개최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이병기·조경4)는 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 옥야실에서 임시총회를 갖는다.

4학년 졸업 준비위원 36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이번 임시총회는 앨범 제작에 관한 안건으로 △앨범 제작 계약 △앨범료 인상 제안 △전년도 학교별 앨범비 비교 △학교별 인원 현황 및 앨범 제작금, 졸업비 책정 현황 등이 다뤄질 것이다.

자대 야외영화 상영

자연대 학생회(회장=정홍명·수교4)는 내일(15일) 오후 7시 30분에 자연회관에서 앞뜰 넓은 광장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

이번에 상영될 영화는 소외된 계층의 삶을 다룬 '악어'이며,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해서 이 영화를 택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한편, 매일 둘째주에 정기적으로 가질 영화 상영은 자연 회관과 흰 벽을 스르르 이용해 상영될 예정으로 상영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으로 정해졌다.

야총 체육대회 개최

제 3대 야간 총학생활회(회장=김영일·법3)의 주최로 지난 11일 시작된 '동국야간 체육대회'가 내일(15일) 결선 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결선 당일 일정을 살펴보면 △입장식-오전 11시, 대운동장 △아구-오전 10시 소운동장 △남야구, 족구-오후 12시 대운동장 △축구-오후 1시 대운동장 배구-오후 6시 30분 문무관 △백계주, 율리기 및 번의 경기-시간 미정(축구 경기 끝난 후) 대운동장 등이다.

한의대 식비 동일 적용

한의대학생회(회장=송용훈·본1)는 지난 10일 타단대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시켜 문제가 됐던 한의대 식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업무추진 협의를 했다.

전한련 간부대회 본교에서 치뤄

13기 의장 송용훈 옹립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의장=송용훈·본교 한의대 학생회장 이하 전한련)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본교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간부 대회를 열었다.

간부 대회 첫날인 지난 11일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회식 △의장 상영 △간부 소개 △상임위 옹립식 △의장 옹립식 △총노선 논의 순으로 이뤄졌다.

의장 옹립식을 통해 제 13기 전한련 의장이 된 송용훈 본교 한의대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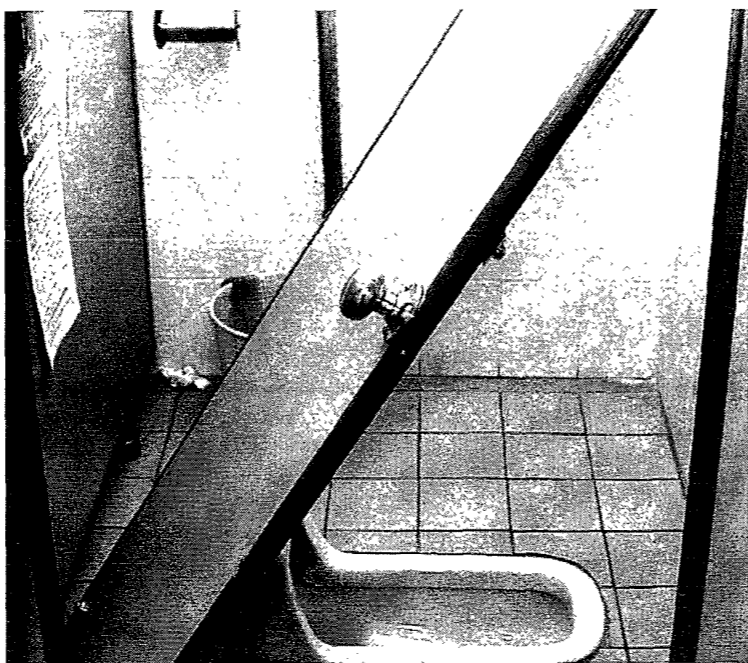
장은 "전한련 조직력의 복구를 위해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가 되는 전한련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튿날인 지난 12일은 전날에 논의했던 총노선에서 △조직 체계의 개선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사상적 과제 △보건 5계연 연대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는 각 학교별 간부 대회 평가가 있는 뒤 폐회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시선 집중

이 탈



○ 학생회관 4층 여학생 화장실의 문이 부서져 채 방치되어 있다. 이용자의 불편을 덜기위해서도 조속한 보수공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해경 기자)

박물관 초청 학술 강연회 개최

'서역의 역사와 문화' 주제로 강연

박물관(관장=황상주·미술학)은 지난 9일 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제 1회 초청 학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강연회는 고고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새로운 서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취지로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서역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청 강사인 왕병화(현 중국 신강 문물 연구소 소장)씨가 중국어로 강연하면, 그 내용을 다시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 내용은 스

서역의 개념 △서역 배경과 지리적 위치(조건) △서역 지대에서 발견된 유물 △서역의 기후 △고대 서역 문화 △서역 문화 △슬라이드 설명 △물리지역, 성곽 도시 흔적, 불탑과 건물 양식의 흔적, 불길 흔적, 발굴된 유적 등을 설명하는 형식이었다.

이날 강연장에는 약 1백 5십여 명의 학생 및 교수들이 참석했으며, 강연이 끝난 후에는 토론식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96년도 전기 졸업자 취업결과 나와

"고용감축으로 작년보다 취업률 낮아"

취업과(과장=정성호)는 96학년도 전기 졸업자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취업률이 53.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률-53.1%(대학원, 유학, 군입대 제외) △전체 남자 취업률-56.2% △전체 여자 취업률-49.5% 등이고, 단대별 취업률은

△법대-62.5% △자연대-53.7% △법정대-52% △인문대-52.2% △상경대-47% △의대-97.5%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 관계자는 "고용 감축으로 인해 작년보다 대략 2.5% 취업률이 낮아졌으며, 치열하게 가는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학생들의 꾸준한 취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4·19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4·19를 기념하고 동국의 전통을 계승하여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제17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21세기 모교 발전에 동참하고 동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경주캠퍼스 제 17회 등산대회

1. 일시 : 1997. 4. 18(금) 08:30 - 18:00
2. 장소 : 경주 남산일원(통일전→칠불암→연못→용장계곡(중식)→정삼→상선암→삼봉)
3. 대상 : 교직원부, 동문부, 재학생부, 동아리부, 기숙사부
4. 내용 : 개회식, 등산대회, 장기자랑 및 시상식
5. 팀 구성 : 조당 리더 1명, 대원 3명 - 계 4명 -
6. 시상
 - 가. 최우수상(1팀), 용맹정진상(3팀), 코끼리상(3팀), 연꽃상(3팀), 자연보호상(3팀), 특별상
 - 나. 특별상은 인원동원이 가장 많은 학과(학부), 동아리, 기타 단체중에서 선정 하여 시상한다.
 - 다. 장기자랑 시상은 별도로 심사하여 시상한다.
7. 접수기간 : 1997. 4. 8(화) - 4.16(수) 16:00까지
8. 접수처 : 백상탑 앞 산악부 특별캠프(우천시 학생회관로비)
9. 장기자랑 출연한 팀은 참가신청서 소정란에 반드시 출연자 성명을 기입하여 신청해야 한다. 진행중에는 즉흥 출연을 허가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 학생과(원호관 1층, 교내전화 : 2047~8)로 문의

경주캠퍼스 학생처장

4·19 기념 마라톤 대회

1. 일시 : 1997. 4. 17(목) 14:30
2. 장소 : 본교주변(본교→성전 사거리→성전 교수부지 →잠수교→황성공원→시립도서관→북천교→성전 사거리→본교)
3. 대상 : 전 동국인
4. 기념품 및 상품
 - 가. 기념품 - 참가자 전원
 - 나. 상품 - 1·2·3 위
5. 참가 방법
 - 가. 접수처 - 총학생회 사무실
 - 나. 접수기간 - 1997. 4. 14(월) - 4. 17(목)

제14대 학우공감 총학생회

모의토익 실시

1. 일 시 : 1997. 5. 2(금) 09:00 - 12:00
2. 장 소 : 교내 지정강의실
3. 대 상 : 신입생 전원 및 2,3,4년 학생 중 희망자
4. 대행기관 : YBM 시사영어사
5. 응시원서(2,3,4년)교부 및 접수
 - 가. 교부·접수기간 : 1997. 4. 16(수) - 4. 22(화)
 - 나. 교부·접수처 : 취업과
 - * 신입생은 수험표만 일괄 교부함
6. 응시료 : 무료(학교부담)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과(구내 2054, 2055)에 문의 바람.

경주캠퍼스 학생처장

국문학과 백일장 개최

국어국문학과 학생회는 동국대학교 세류캠퍼스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 시 :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 소 : 녹야원
- 참 가 대 상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전학우
- 부 문 : 시(현대시, 시조), 산문(단편소설, 콩트, 수필)
- 시상내역 : 각 부문 장원 1명(부총장상), 차상2명(인문대학장상)

제 17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 도서 미납 사태

미납장서 8백권 상환... 타인 배려필요

중앙도서관(관장=인호일·독어독문학과)에서 책을 대출한 이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험기간이 코앞에 닥친 지금 이용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출자들의 도서 미납권수는 이미 8백여권을 넘어서 도서관의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비싼 시험기간뿐만 아니라 과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책들을 찾지만 소장장서가 부족한 데도 대출해간 불편에 미납이 더해져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장순(사회과학계열 1)군은 "보고 싶은 책이 있어 도서관에 갈 때마다 찾아보지만 번번히 없어 딱이 빠진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대출 미납자 중에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몇몇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은 지난 3월 28일 현재 교수 17명이 40권을 빌리거나 후 27권만을 반납해 13권의 책이 미반납된 상태라고 말한다. 미납한 교수들에게 계속 개인적인 연락을 하고, 연체일수가 지나치면 건 경우엔 공문형식으로 통지까지 하고 있지만 강제적 제재수단이 없어 자발적인 반납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들의 도서관 대출 권수와 기간은 20권 1백80일로 상당히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납기한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도 일부 졸업생들의 경우도 도서미납문제가 심각해, 지난 4일자 파악한 바로는 28명이 37권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측은 "개별로 전화를 이용해 통지하

기도 하고 반납종보지를 집에 보내기도 하지만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이들 졸업생들에 대한 학적과에 협조를 부탁해 각종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책을 반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미납자 제재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연체된 일수만큼 대출을 금지시키는 방법과 벌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있다. 본교에서는 아직 전자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한 연체기간동안의 대출금지로는 확실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어 대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대출한 도서를 분실하여 도서를 미납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도서관의 2배와 정리비(1천원)를 포함한 변상을 하게된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관리소홀로 인해 변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3, 4월 두달간 분실하여 변상한 책들이 83권에 이르고 있다.

대출기관에 책을 읽지 못한 경우는 반납장소에 가서 5일동안 더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한 다음 다시 대출하는 방법이 있다.

도서를 미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 또한 자신이 빌려간 책을 다른 학생이 기한을 기다리며 찾을 수도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도서관 측은 자신만 보는 책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돌아가며 보는 것임을 새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정식 기자)

학대표자회의, 학자투 등 총노선 채택

범동국인 북한 돕기 - 고 류재를 열사 모금운동도

97 상반기 정기 학생 대표자회의가 지난 9일 오후 3시 중앙관에서 열렸다.

정중수 1백 18명중 사교 14명을 제외한 총인 1백 4명의 50%를 간신히 넘는 53명 참석, 회의는 시작했다.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단 임명, 회의진행 세칙 공유, 본회의 의장소개 등의 사전회의를 마쳤다.

이후 시작된 본회의는 총학생회장

의 인사말, 총학생회 중앙 집행부 인준, 97년 총노선 토론, 상반기 학자투 방향, 97년 학자투 요구안 채택, 고 류재를 열사 모금운동·범 동국인 북한 돕기 운동·4.18 2차 총궐기·1991 1차 민중대회 사수등 당면투쟁 및 결의로 이어졌다.

한편, 97년 학원지주와 투쟁 요구안의 내용은 △등록금 책정 협의 구성 △96년 결산내역·97년 예산내역 공개

△미집행 이월액 즉각 공개 △장학금·실용실습비 등 학생경비 즉각 공개 및 수혜확대 △강의계획서 사전배포 △학부생 정중선택권 전면 보장 △학부생 자치권과 자치공간 즉각 보장 △합의 없이 진행된 시간제 등록제 전면 철회 △93년 이후 야간강좌에 진행되고 있는 증거 전면 중단 △절대공간 확보와 재3캠퍼스 이전 진행정도 공개와 이전 반대 등이다.

오는 17일 미국유학설명회 개최

유학 일정 서류 작성·어학 연수등 제반사항 안내

학생생활연구소(소장=고진호·교육학)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가건물(V104)에서 '미국유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세계화 추세로 어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교육위원회 유학담당자 김남형씨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유학일정과 서류 작성 등 미국유학에 관한 안내 △미국 어학연수안내 △질의·응답의 유학상담 순으로 치뤄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생활연구소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어학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어학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

제2회 동악 성문화상 현상공모전 개최

제1회 총학생회(회장=김인영·사3)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동악 성문화상 현상공모전'을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8일까지이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성에 대한 내용으로 연극, 문학작품, 사진, 퍼포먼스 등 장르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대상 1개작품(20만원)과 일선 3개작품(각 5만원)을 뽑아 대동제 기간에 시상 할 예정이며, 참가팀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주어진다. 행사와 관련해 홍미리(화3) 부총여

학생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은폐되어 왔다"고 제재한 뒤 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왜곡된 성의식을 막고 건강하게 공포전의 의의를 밝혔다.

동아건설 취업설명회

취업과(과장=김철석)는 오늘(14일)과 내일 '동아건설 회사취업설명회'를 실시한다.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공과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14일 오후시30분 가건물(V203)에서 동아건설 인사과 직원의 동아건설 회사 취업설명회와 취업자료실에서 개별면담을, 15일 원흥관 로비에서 원사배부 및 접수와 면담을 실시한다.

취업과 관계자는 "동아건설은 본교 동문의 취업률이 높고 작년에도 6명이 입사한 만큼 공대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배도원 크스님 초청 대법회 개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내일(15일) 오후 4시 '배도원 크스님 초청 대법회'를 실시한다.

배도원 크스님 초청 대법회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는 주제 설명한다. 학생, 교직원, 일반불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법회에 대해 '현대인들이 불교수행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에 대해 제시해 줄 것'이라고 정각원 안중철 법사는 말했다.

불대, 진군식 취워

제 29대 불교대 학생회(회장=정의석·선3) 진군식이 지난 8일 오후 5시 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학술문화관 컴퓨터실에서 열렸다.

학생회장 정의석군은 '우리사회에 광배한 무관심과 소외의 벽을 넘어 자비와 현정의 대원력으로 불교대 새날을 열자는 출발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뜻을 이룩하는 학생회 건설을 위해 모두 하나되는 자세로 정진하자"며 인사말을 마쳤다. 사순은 풍물패 길놀이, 집행부 소개, 운영위 소개, 단대장·학생회장 인사, 새내기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경상대, 영화제 첫선

경상대 학생회(회장=양한승·정보3)는 지난 10일 오후 6시 경상대 계열 도서관에서 '예비영화제'를 개최해 영화 '밴드엔 프리덤'을 상영한 후 간단한 토론회를 가졌다.

경상대 학생회 양한승군은 "이번 영화제는 정기적인 영화 상영 및 토론을 갖는 정기영화제의 준비작업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보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영화에 비취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고민하는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학생 부처, '성과의 대화' 집담회

여학생부처(처장=임동희·사학)는 오는 17일 오후 1시 계산관에서 '성과의 대화'란 주제로 전문가 초빙 집담회를 개최한다.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집담회는 중앙대 응산병원장이자 동아일보 '성의학' 칼럼리스트인 김세철 박사가 '성'에대해 강연을 한 후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여학생부처(260-3056)에서는 집담회 당일 공개석상에서 하기 곤란한 성에 대한 질문을 전화로 받고 있다.

학·전·무·대

책임져

0...최고의 도서관을 자랑하는 도서관(?). 과연 정말로 빌릴만한 책은 있을까?

도서 대출을 하면 기한내에 가져오는 것이 지식인의 에티켓일텐데, 수업시간에 레포트 숙제를 내주면 참고서적인 동이 나고, 책을 찾다 짜증내는 한 학생을 "책 책 책임져, 내 인생 책임져."

일석이조

0...교수, 직원, 학생이 모여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고.

알아본즉 '범동국 북한주민 돕기운동'을 학내 3주체가 모여 벌이기로 했다. 배 씨는 한민족 생각하며 그간의 결고려움도 있어버리고 손을 잡은 3주체. 각기 자기 분야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속속 내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는 중. 이에 회전문대자 한마디. "동학의 주체들이 모여 단결도 하고 민족사랑은 좋은 일도 하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새로운 수위(?)

0... "신분증 좀 보여주시오." 집회가 있다는 소리만 들려도 총무로 거리는는 끈방을 든 경찰의 소굴(?). 허구한 날 계속되는 불신감문으로 동료급 학생들을 짜증나게 하는 데.

도대체 공부하러 학교에 오는 건지, 학생증 보여주러 학교에 오는 건지 아직도 아라송.

이제 지나가는 한 학우 왈 "경찰은 할 일이 꽤 없나? 죄도 안자질 했는데 죄를 만들려고 안간힘이니, 그럴 시간 있으면 조지폭력대(?)잡을 일이지."

새 조심, 쥐 조심

0...전화방이 편을 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밀실에서 전화를 하다보니 내용은 자꾸 음란해져만 가고...

심지어 유부녀가 애인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춘에 이용되기도 한다고. 이에 회전문대자 한마디. "낯발은 새가 들고 밤 달은 쥐가 듣는다는데 전화 조심합시다"

4학년 대상 무료 모의 토익시험

25일까지 접수...미달시 2·3학년 재학생도 응시가 가능

취업과(과장=김철석)는 오는 5월 17일 실시되는 모의 토익시험의 응시접수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4학년 재학생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총 1천3백38명의 모집인원 중 '재원자가 미달일 경우에는 2·3학년 재학생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이고 접수장소는 본관 취업과이다.

학년별 접수기간은 4학년 재학생이 21일부터 25일까지, 2·3학년 재학생은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시사영어사 YBM에서 문제를 제공한다. 취업과 김철석 과장은 "취업의 관문에 토익시험의 비중이 커지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본 시험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사과대, 예산자치제 실시

사회과학대 학생회(회장=이영재·사회4)는 '예산자치제'를 통한 학생회 구'동개혁'을 실시한다. 사회과학대는 이미 지난달 31일 1차 차차단위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예산자치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부학생회장 이종열군은 "예산자치제란

기존의 학생회의 하달식 제도를 탈피하여 차차단위대표자들에게 부분적으로 학생회 예산의 기획 및 집행권을 위임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학생회가 독점하고 있는 사업기획과 예산권을 분권화하여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의의를 전했다.



배고픈 수거함... 보이는 곳에 있어도 건전지를 넣을까, 말까인데 더군다나 주차지역에 있으니 배고픈 것이 당연. 사진은 공대 농구장과 동역로 사이에 있는 건전지 수거함. (오인택 기자)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for the 3rd and 2nd quarters of 1996. It lists assets and liabilities with corresponding amounts in Korean Won.

모의토익시험 안내
기업의 국제화 정보화에 발맞추고 21세기의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본교 취업예비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모의토익시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1,338명
2. 지원지역 : 4학년 재학생, 선착순 (단, 4학년 재학생의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2·3학년 재학생도 지원 가능)
3. 응시비용 : 무료
4. 접수기간 : 가. 4학년 : 4월 21일(월)~4월25일(금) 나. 2,3학년 : 4월 28일(월)~5월 2일(금)
5. 접수장소 및 시간 : 서울캠퍼스 본관 취업과, 09:30-17:00 (접수시 학생증 지참)
6. 시험일시 : 5월 17일(토) 오전 09:30-12:00
7. 시험장소 : 본교 90주년기념문화관
8. 시험지 공급 및 성적분석처리 : 시사영어사(YBM)
9. 시험성적결과 : 시험일시 20일후 취업자료실에서 개인별 토익 분석표 배부.
10. 문의처 : 학생과 취업과(260-3053, 3054, 3055)
학 생 처 장

'97 단기강좌 개설 안내
여학생부처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단기강좌의 내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강좌를 개설하오니,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1. 수강기간 : 1997. 4. 21. - 1996. 5. 28.
2. 장소 : 계산관(사대열전동)
3. 대상 및 수강료
① 대상 - 동국인
② 수강료 - 5,000원
③ 원하는 강좌를 여학생부처에서 신청하면 수강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접수인원이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 마감되며, 정원이탈 강좌는 폐강함)
4. 접수처 및 접수기간
① 접수처 : 계산관 1층 학생문화복지실 안내책상
② 접수기간 : 4월 10일(목) - 4월 17일(목)동안
(단 기 강 좌 안내)
*기간 : 1997년 4월 21일 - 5월 28일동안
강좌명 강사 내용 요일/시간 비고
다이어트 광희관 1 비만예방(영양학의 발전) 2 비만예방의 의학 원리 (강좌의 미비) 3 비만예방의 생활 습관 4 다이어트 운동의 원리와 대안 5 다이어트의 영양 관념 1 (오전 9시~11시) *준비물 본인준비
메이크업 박성희 Demonstration과 함께 이론 2 용 37년 Make-up The Making of Glamour Makeup 3 학생 스타일에 따른 point 포인트 4 유행하는 Make-up 5 T P 에 따른 Make-up 화요일 (10:30-00) *준비물 본인준비
스포츠댄스 손정원 1 기본스텝연습 2 유행 3 반박 화요일 (3:00-5:00) *준비물 본인준비
(패즈 & 볼륨) 체육교과과 교수)

신경림선생 초청강연회
제목 : 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일시 : 1997. 4. 22 (13:00-15:00)
장소 : 90주년 기념 학술관 세미나 2실
한국어문학부
미국유학설명회 개최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최근 세계화 추세와 함께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발 맞추어 미국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본 설명회에서는 미국유학에 필요한 각종 안내와 함께 어학연수에 관해서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한 상담(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이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1997년 4월 17일(목요일) 오후 3시
2. 장소 : 본과대학(명진관) 1층 A 104호
3. 초청기관 : 한미교육위원회
4. 내용 : 1) 미국유학에 관한 안내 2) 미국 어학연수 안내 3) 유학상담(질의·응답)
학생 생활 연구 소장

